백금남 소설 아디카야의 검 ⑲ 뉴델리에서 며칠 ②

▶한줄 요약
천상을 본 후 천상에 나기를 발원하며 수행에 들어갔던 난타는 천상과는 전혀 다른 세계인 지옥을 보게 되고 어리석었던 자신을 돌아보며 새로운 마음으로 수행을 이어가기로 한다.



지옥 본 난타, 다시 수행 시작하다

이 거리에 서서 그녀와 짜이를 마시면서 킬킬거렸던 때가?

국립 도서관은 거리가 멀었으므로 서점이나 찾아보자고 했다. 그럴듯한 서점이 없었다. 서점이라고 해야 대부분 열악하고 조악한 편이었다. 꼬질꼬질한 공간에 촌스럽게 제본된 책들이 여기저기 널렸다. 입구에서 돌아가는 선풍기는 꼭 숙소의 선풍기를 닮아 있었다. 녹이 슬고 덜덜거리는 것까지. 덕지덕지 묻은 때가 더운 바람을 타고 금방이라도 달라붙을 것 같다. 생각이 그래서인지 갑자기 코가 매웠다. 재채기를 두어 번 하고 나서야 멎었다. 정말 선풍기의 바람 때문일까, 내 의식의 발로일까.

여기서는 오히려 깨끗하다는 것이 이상하다는 걸 모르는 게 아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짜증이 일었다. 그때마다 달라붙는 기억의 편린들이 짜증스러웠다. 그런 나라가 아닌가. 겉치레보다는 영혼의 성숙을 노래하는 나라. 서양 문화가 밀려와도 자기 것을 버릴 줄 모르는 나라. 그렇기에 이곳에서는 그들의 영혼이 되어 보는 것이다. 그들의 풍습에 젖고 그들의 문화에 넋을 빼앗겨 보는 것이다. 그들은 시체가 둥둥 떠다니는 갠지스의 흙탕물이 어머니의 젖줄이라고 생각한다. 비로소 그 물속에 손을 담그면 의미를 알게 된다. 아, 이것이 인도구나. 흙탕물이 맑은 한 바가지의 물보다 더 맑을 수 있다는 사실. 그렇게 느껴지고 그렇게 인식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 그저 신비롭기만 한 나라.

대학에 다닐 때 그녀와 이곳으로 왔었다. 처음에 그녀는 불편해 했으나 점차 이곳 사람이 되어 갔다. 이 나라가 그녀의 꿈이 될 줄 그때는 몰랐었다. 어떻게 알았을까. 싸우고 난 후면 그녀는 이곳에 와 있었다. 한 달이고 두 달이고 한국으로 돌아오지 않았다. 보내오던 엽서. 눈 쌓인 히말라야 설산. 그녀를 찾아 이 거리를 헤매던 날들. 결국 그녀는 이곳에서 만난 남자와 결혼했다. 그렇게 떠나갔다.

스리나가르에 있다는 성물에 대한 자료를 찾아보고 싶었으나 찾을 수가 없었다. 힌두 신앙의 원산지여서인지 대부분 그쪽 글들이 많았다. 돌아와 보니 뜻밖에도 송 서화가가 계단에 쪼그리고 앉아 나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는 나름대로 이곳 문물을 체험해 봐야겠다고 나갔었는데 맥없이 앉아 나를 기다리고 있었다.

-왜 그러고 앉았습니까? 들어가지 않고?

-열쇠를 잃어버렸지 뭐요.

-그럼 집주인에게 열어달라지요.

-집주인도 나가고 없는데….

-저도 없잖아요.

-그렇지요?

잠시 기다리고 있는데 주인 남자가 어디서 돌아오는 것인지 털렁거리며 왔다. 열쇠를 잊었다고 하자 푸시시 웃으며 어디 여벌 열쇠가 있을 것이라며 안으로 들어가더니 이내 찾아서 나왔다.

송 서화가는 방으로 들어서기가 무섭게 풀썩 침대로 넘어졌다. 매우 피곤해 보였다.

-어디 갔었습니까?

내가 물었다.

-사원이나 힌두 사원 닥치는 대로 돌아다녔는데….

-왜, 무슨 일 있었습니까?

-일은 무슨…. 죽을 지경입니다.

-왜요?

-넨장 이곳 그림 구경을 좀 하려고 돌아다녔는데 기가 막혀서….

그렇게 말하고 그가 웃었다.

-좀 그렇지요?

-정말 모를 게 이곳 사람이더군요. 좀 멀긴 했지만, 시에서 하는 화랑이 있다기에 그곳에 들렀더니 운 좋게도 이곳 화가의 책이 한 권 있더라고요.

-그래요?

-제법 잘 만들었더군요. 그런데 내용을 보니까 무슨 그림들인지. 영 헷갈려요. 뭐 하나 확실한 게 있어야지요. 작가들이 쓴 글들도 있었는데 그렇더군요.

-그렇습니다. 나도 오오스마 기자에게 이끌려 좀 돌아다녀 보았는데 그래요.

-잠이나 자야겠습니다.

그의 얕게 코 고는 소리를 들으며 나는 커피를 들고 창가로 다가갔다.

3 이 분 마르기 전에 돌아오소서

붓다는 어느 날 제자 사리풋드라를 찾았다.

사리풋드라가 오자 붓다는 이렇게 일렀다.

-대중들에게 가서 일러라. 누구도 난타와는 상대하지 말라고.

-붓다이시여, 무슨 말씀이십니까? 난타 사문과 상대를 하지 말라니요?

-아무튼 그렇게 일러라. 그와는 자리도 같이하지 말라고. 같은 곳에서 거닐지도 말 것이며, 같은 횃대에 옷도 걸지 말 것이며, 같은 곳에 발우를 놓거나 물병도 두지 말 것이며, 같은 곳에서 경전도 독송하지 말라고 그렇게 일러라.

-알겠습니다. 붓다이시여.

사리풋드라는 붓다께서 하신 말씀을 모든 비구에게 전하였다.

난타의 하열한 신심을 깨쳐주기 위한 붓다의 생각을 눈치챈 비구들은 한결같이 그 거룩한 뜻을 따랐다.

난타는 그것도 모르고 비구들과 어울리려고 애를 썼다. 누구 하나 그를 상대해 주지 않았다. 이상하다고 생각하면서도 난타는 계속 비구들과 어울리려고 노력했다. 그런데 그들은 결코 그와 어울리려고 하지 않았다. 심지어 대놓고 면박을 주기가 일쑤였다.

하루는 사리풋드라와 여러 비구가 공시당(供侍堂)에서 옷을 깁고 있었는데 여러 비구가 싫어해도 라훌라는 사가의 조카이기에 자신을 싫어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하고 그의 곁으로 가 앉았다. 그가 곁에 와 앉자 라훌라가 벌떡 일어났다.



-아니 왜 이러십니까?

난타는 라훌라의 얼굴을 멍하니 올려다보았다. 독생자라고 하지만 붓다는 자신의 자식이라고 해서 감싸는 법이 없는지라 마를 대로 말랐다. 궁에서 호의호식할 때는 통통하게 살이 찌더니만 먹거리가 열악하다 보니 몸이 마를 대로 말랐다.

-라훌라야.

-라훌라라고 부르지 마시오. 나는 그대보다 출가를 먼저 한 사형이요 사형이라고 부르시오.

-왜 그래? 너까지.

-어허, 저리 가시오.

-정말 왜 그러느냐?

-아무튼 저리 가라니까요.

-지금까지 다른 비구들이 나를 피하는 건 참을 수 있었으나 너는 내 조카가 아니냐. 아무리 사문의 길에 들어섰다 해도 어떻게 삼촌 되는 사람을 이렇게 갑자기 싫어할 수 있단 말이냐?

라훌라가 지그시 눈을 감았다 떴다. 그리고는 눈을 빛내며 그를 똑바로 바라보았다.

-진실로 그 이치를 모르시겠소?

-그렇다.

-그 이치는 이렇소. 그대는 다른 도를 좇고 있고 나는 다른 길을 가고 있으니 그 때문에 피하는 것이오.

-무엇을 다른 도라 하고 무엇을 너의 길이라 하느냐?

-그대는 지금 천상에 나기를 좋아하여 범행을 닦고 있는 것이오. 하지만 나는 원적(圓寂)을 구하므로 욕심을 없애고 있소.

어린 조카의 말을 듣고 난타는 그만 그 방을 나와 땅바닥에 그대로 엎어졌다. 천궁에 나려고, 그리하여 손타라보다도 더 아름다운 여인네나 만나기 위하여 다시 신심을 내어 범행을 닦으려 했던 자신이 너무도 비하스러워 그는 피를 토하듯 땅을 쳤다.

그러나 그의 하열한 신심을 고쳐주려는 붓다의 자비는 거기서 끝난 게 아니었다. 그 사실을 안 붓다가 그를 불쌍히 여겨 다시 난타에게 다가들었다.

-난타야 너는 나락가(奈洛迦)에 가본 일이 있느냐?

나락가란 지옥을 말하는데 난타는 머리를 내저었다.

-아직 가보지 못했습니다.

-그럼 그리로 가자구나. 내 너의 슬픔에 도움이 되리라.

붓다는 난타를 곧 나락가로 데려갔다. 눈앞에 나타난 지옥의 모습을 보면서 난타는 그만 비명을 지르고 말았다.

그는 먼저 지옥의 언덕에서 재가 흐르는 강물을 보았다. 그런 다음 칼로 된 나무가 있는 곳과 똥오줌만 가득한 곳과 불로 된 강물이 흐르는 곳을 보았다. 옥졸들이 죄를 짓고 들어온 유정들을 차례로 붙잡아 부젓가락으로 혀를 뽑고, 이를 비틀고, 눈을 후벼 파내고, 톱으로 몸을 썰고, 도끼로 손발을 자르고, 몽둥이로 때리고, 창으로 찌르고, 쇠몽둥이로 부수어 가루가 되게 하고, 이글거리는 구리물을 입에다 부어 넣고, 칼로 된 산과 칼로 된 나무에 오르게 하고, 방아에 찧고 돌에 갈며 이글거리는 구리 기둥과 쇠평상에서 극심한 고통을 받기도 하고, 맹렬한 불에 펄펄 끓어오르는 가마솥에서 유정들을 삶고 있기도 하였다.

난타는 고통 받고 있는 일들을 보고 나서 다시 한 가마솥을 보았더니 그것은 빈 가마솥이었다. 펄펄 끓고 있는 것은 기름뿐이었다. 속에는 유정들이 보이지 않았다. 왜 저것만이 빈 가마솥일까 생각하며 옥졸에게 물었다.

-무슨 이유로 다른 가마솥에서는 모든 유정을 삶고 있는데 왜 이 가마솥만은 끓기만 하고 비어 있는 것입니까?

-나는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옥졸이 고개를 끄덕이다 말고 대답하였다.

-기다리고 있다니요?

-붓다 님의 아우 되는 난타라는 이가 천상에 나기만을 원하면서 범행을 닦고 있으므로 곧 이리로 올 것이기 때문입니다. 잠시 그 복덕으로 천상에 나서 쾌락을 누릴지 모르나 거기서 그 보를 다하면 이곳에 올 것이므로 이렇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난타는 그 말을 듣고 그만 너무 겁이 나서 급히 도망쳐 나오고 말았다. 가까스로 정신을 차려 보니 온몸의 털이 곤두서 있고 식은땀이 줄줄 흘러내리고 있었다. 그는 눈물을 흘리면서 붓다에게로 갔다.

-난타야 너는 지옥의 모습을 보았느냐?

붓다가 물었다.

-예 보았습니다.

난타가 울면서 대답했다.

-너는 어떠한 것들을 보았느냐?

난타는 그가 본 지옥세계를 그대로 아뢰었다.

-난타야 너무 슬퍼하지 말아라. 그것이 바로 우리의 숙명이니라. 그러니 천상을 구하면서 범행을 부지런히 닦는 사람은 이런 허물이 있는 것이니 그러므로 너는 열반을 구하며 범행을 닦아야 하고 천상에 나기를 바라면서 애써 수고하면 안 될 것이니라. 난타는 그제야 깨닫는 바가 있어 부끄러워 고개도 들지 못하였다. 붓다는 그런 그를 데리고 정사로 돌아왔다. 이번에도 붓다는 돌아오는 즉시 여러 비구를 모아 놓고 이런 말을 하였다.

-난타 비구가 수행을 열심히 해도 그를 가까이하지 말아라.

제자들이 그 거룩한 뜻을 알고는 그를 가까이하지 않았다.

수행을 계속하다가 그에 화가 난 난타가 아나율 사형을 잡고 물었다.

-한때는 내 천궁에 미쳐 그릇된 신심을 내었다 하나 이제 지옥 보를 받지 않기 위해 열심히 수행하는데 왜 또 나를 멀리하시오?

아나율 사형이 그걸 모르겠느냐는 얼굴로 그를 돌아보았다.〈계속〉

불기2567(2023)년 부처님오신날 마음의 평화 부처님 세상

한국불교조계종협의회

사단법인 한국불교조계종협의회
한국불교조계종 총무원장 대 봉

종도일동

KBB한국불교방송주식회사, KBB한국불교방송신문, 월간시사뉴스, KBB한국불교방송자문위원회, KBB한국불교방송불자총연합천불회

사) 한국불교조계종협의회 총본산
총무원 : 경북 문경시 마성면 신현1길 24 문경백봉사 전화 1577-1016, 054)571-6973,1030(협의회) / 팩스 054)571-7498
방송국 : 대구광역시 달서구 새동네로 107, 예림빌딩 전화 1670-2010